

◎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9년도 표어 ◎

"우리를 고치시는 그리스도" (마8:7)

◎ 4대 실천강령 ◎

1. 은혜 주신 하나님을 믿고 내가 먼저 회개한다.
2. 고치시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서로 위로한다.
3. 보혜사 성령님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바친다.
4.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린다.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02) 517-7651 ~ 5 팩스 (02) 512-1225

주여, 우리를 고쳐 주소서!

20세기 마지막 해인 1999년도 새해를 맞이하여 지나간 천 년을 돌이켜 보고 다가올 21세기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먼저 역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 "나를 고쳐주소서" 라고 기도를 드려야겠다.

이 세상에 완전한 것은 없다. 완전을 향해 자신을 꾸준히 고치고 보충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인간 역사요 하나님 앞에 서있는 성도의 가는 길이다. 우리는 우리의 부족과 잘못과 무력함을 알기에 우리 주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고칠 바에는 송두리채 고쳐야 한다. 겉만 고침을 받아서는 안된다. 속사람이 고침을 받아야 한다. 교회도 사회도 모두 고칠 것을 고쳐야 한다. 오랫동안 지켜 내려온 전통도 관습도 그리고 소중히 여기고 아끼던 방법도 관례도 필요하다면 과감히 고쳐야 한다.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성경·교회를 개혁의 잣대로 세워 놓고 그에 맞지 않는 것은 두려움 없이 부수고 헐고 버리고 고쳐나갔다. 믿음·은혜·말씀을 따라 하나님 영광만 바라보면서 교회의 잘못된 제도뿐 아니라 신앙과 신학까지도 가차없이 고쳐나갔다. 썩은 가지는 잘라내야 한다. 금세기가 가기 전 모든

사회적 병리 현상들을 고쳐야겠다. 새싹이 돋아날 수 있도록 아깝지만 버려야 할 것은 버려야 한다. 고치면 조금 나아지는 것이 아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고쳐진 것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옛 것

1999년 신년메시지

이종윤 목사

과 비교되어 조금 진보되어진 것이 아니고 질적으로 변화된 것이므로 더욱 튼튼하고 힘이 있게 된 것이다.

병든 자아를 고치실 분은 "내가 고치리라" 하신 예수님뿐이시다. 포도나무에서 꺾이운 가지처럼 예수님을 떠난 자신의 모습은 시들고 부패하고 죽은 존재가 아니었던가.

이제는 돌아가야 한다.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개인도 사회도 국가도 교회도 고침 받고 생명을 얻고 사명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주님으로부터 고침받기를 소원할 뿐 아니라 고침을 받은

새 사람으로서 이제는 다른 사람을 고치고 병든 사회와 나라를 고치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야 한다.

초대 교회로부터 지금까지 교회가 옆길로 빠지거나 사회가 흔들릴 때마다 역사의 주권을 가지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종들을 통해 먼저 교회를 고치시고 그 교회로 하여금 사회도 국가도 치료해 주셨다.

이제 한국 교회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발을 딛기 전 가슴으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던 여호수아처럼 "자기를 성결케 하는 일"을 먼저 해야 할 것이다. 각각 자기 집을 고치고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듯 섬기는 교회를 고침으로 국가 사회도 위기에서 구원을 얻는 변화를 시작케 될 것이다.

우리 사회가 하나님 앞에서 정의로운 사회가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이 많아질 때 분단된 조국의 허리도 고침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기적도 보게 될 것이다. 천년이 바뀌는 이 엄청난 역사의 틈바구니에 끼어 두려워 하지만 말고 우리를 고쳐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켜 고침을 받고 또 고쳐주는 서울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기원한다.

새해
인사

"우리를 고치시는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당회원 일동 -



1999년도

서울교회 목회지침

■ 표어

"우리를 고치시는 그리스도" (마8:7)

■ 4대 실천강령

1. 은혜 주신 하나님을 믿고 내가 먼저 회개한다.
2. 고치시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서로 위로한다.
3. 보혜사 성령님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바친다.
4.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린다.

금년도 주요 교회행사 일정

1999년 교회 주요 행사

1월	3일 / 신년감사예배 및 성찬식 3일 / 공동의회(예·결산 심의의 건) 3일 / 순결서약식 4 - 9일 / 청지기수련회
2월	15 - 16일 / 성경통독사경회(구약) - 교회학교별 겨울수련회, 겨울성경학교
3월	20일 / 육군사관학교 세례식 집례 29일 / 제 15학기 목회자 신학 세미나 개강 (6월 7일까지 매주 월요일)
4월	4일 / 부활절 예배(성찬식) 8일 / 교구일꾼수련회
5월	9일 / 가족찬양대회 9일 / 특별제직회(장로후보선거에 관한 건) 23일 / 집사·권사 선거 24일 / 제 10차 김치(KIMCHI) 신학세미나 (일본 목회자 초청, 6월 3일까지) 30일 / 공동의회(장로 선거)
6월	6일 / 홍해작전 개전(25일까지 20일간) - 건축현금 27일 / 홍해작전 승전감사예배
7월	4일 / 맥추감사절(성찬식) - 교회학교별 여름수련회, 여름성경학교
8월	9 - 12일 / 농어촌 전도대 파송
9월	6일 / 제 16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 개강 (11월 8일까지 매주 월요일)
10월	3일 / 비전 2020운동 시작 (11월 21일까지 50일간) 6 - 8일 / 새 예배당 건축을 위한 바자 31일 / 성경암송대회(교회학교별)
11월	7일 / 성경암송대회(본선) 14일 / 추수감사 찬양예배 21일 / 추수감사절 · 교회설립8주년(성찬식) 21일 / 장로 · 권사 · 집사 임직식 28일 / 중 · 고등부, 대학 · 청년부 특순
12월	5일 / 제직 및 교구일꾼 임명식 12일, 15일 / 찬양대원 임명식 19일 / 교회학교 교사 임명식 19일 / 성탄축하 찬양예배 24일 / 성탄축하의 밤 25일 / 성탄절 예배 26일 / 특별제직회(결산과 예산심의)

금년도 우리 교회 행사 일정이 확정됐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부활절, 맥추절, 추수감사절 등 절기예배 때마다 성찬식을 거행한다.

또한 각종 수련회와 세미나를 통해 영적인 성숙을 도모할 것이며 '홍해작전', '비전 2020운동' 등 해마다 개최하는 행사들도 좀 더 발전적인 기획과 실제적인 운영을 추구, 내실을 기할 것이다.

전국 목회자 신학세미나는 3월과 9월에 각각 제 15학기와 16학기 개강예배를 드리고 10주간에 걸쳐 매주 월요일에 세미나를

개최하게 된다. 또한 5월 말에는 제 10차 김치(KIMCHI) 신학세미나가 개최된다.

장로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가 5월 마지막

월	헌신예배주관부서
2	교회학교 교사
3	여전도회 연합회
4	남선교회 연합회
5	중등부
6	고등부
9	대학부
10	청년부
11	찬양대

주에 열린다.한편 매월 첫 주 찬양예배는 각 부서가 주관하는 헌신예배로 드린다. 월별 헌신예배 주관 부서는 도표와 같다. 또 매달 마지막 주에는 새가족환영회를 가지며 학습·세례식은 격월로 거행된다.

위원회에 듣는다 - 재정위원회

힘껏 바치고 근검절약하여 하나님의 집을 세우자

박철훈(장로, 재정위원장)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결산을 보고하고 예산을 심의하기에 바쁩니다. 영리 목적을 갖고 움직이는 기업이나 국가 기관과는 달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예산을 짜야 합니다. 따라서 인간의 계획과 방법은 계산상의 숫자나열일 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불안하고 경제적으로는 가장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교회는 새 예배당 건축이라는 대명을 받고 99년도 예산 집행의 방향과 초점을 확정했습니다.

첫째, 절제의 본을 실천하여 성도의 자세를 확립하도록 재정정책을 세웠습니다. 당회를 비롯하여 각부 교회학교나 지회들의 모임에 쓰이던 회의비 지출은 대폭 삭감 내지는 삭제했습니다. 식사를 나누며 교제를 할 수 있겠으나 교회의 본질을 생각하고 가능하면 물질적인 것에 매이지 않도록 하는 것은 비용절감에 더해 교회 갱신의 한 방법도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행사비용 지출 시 군살빼기 운동을 벌여 큰 타격이 없는 한 과감히 줄이기로 했습니다. 인쇄물은 이면지를 사용하고, 전등 하나도 켜고 끄는 것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며, 교회기물은 아껴 사용하는 등 모두 근검 정신을 백분 발휘하여 하나님께 바친 헌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청지기 사명을 각자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정직성을 바탕으로 재정이 운영되도록 했습니다. 간혹 항목을 변경하여 다른 일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예산을 전용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용을 사실대로 기재하여 결재토록 합시다. 또 행사를 마치고 정산하여 남은 금액은 즉시 교회로 입금시켜야 합니다. 비록 작은 금액이라 해도 많은 부서에서 남은 금액을 모두 합하면 제법 큰 금액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각 부서는 분기별 감사를 거치면서 회계제도를 받으며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넷째, 협동정신을 발휘하여 무거운 짐을 함께 져야 합니다.

쉽고 편리함 때문에 외부에서 매식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교회 식당을 이용해야 합니다. 만약 각 가정에서 접시 하나씩 준비해 오면 뷔페보다 좋은 식탁을 마련할 수 있으며 이런 협력을 통해 보다 큰 교제도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부서는 예년 같으면 지도 목사, 부장, 남녀 부감, 교사 등 일년간 수고한 분들 모두에게 교사회비를 선물비용으로 썼으나 "이제 서울교회 새예배당 건축이 시작되었으니 적은 것이라도 모아 건축헌금으로 드리자" 하여 헌금으로 드린 뜨거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했습니다. 헌금은 온 교회성도가 빠짐없이 정성과 힘을 다해 드려야 합니다. 동시에 동전 한낱도 낭비와 허비가 되지 않도록 절제하고 절약해야 합니다.

아무도 불평이나 원망으로 하지 말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올해는 온 교회가 "힘에 지나치게" 바치고 근검 절약하는 절제의 삶을 실천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후원자 덕택에

하원일(샌프란시스코 남자다락방장)

주 안에서 평안의 인사를 서울교회 부모님 들께 드립니다. 제가 “부모님들”이라 표현 한 것은 이곳에서도 서울교회 성도님들의 기도의 힘을 느끼며 살기 때문이지요. 주 안에서 기도의 은혜를 입은 저로서는 모든 성도님들이 마치 부모님처럼 여겨진답니다.

제가 정든 고국을 떠나 낯선 미국 땅에서 생활한 지도 어언 2년 반이 되어가는군요. 처음 미국에 도착했을 때는 자신감과 새로운 삶에 대한 두려움이 뒤섞인 혼란스런 상태였습니다. 내가 과연 세계적인 두뇌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하는 두려움이 가장 무겁게 다가왔던 시기였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저의 후원자이신 주님께서는 유학생활 초기부터 좋은 교회 선배들을 만나게 하셔서 이곳 생활에 많은 도움을 받게 하셨습니다.

첫 학기 시작하기 전 두 달은 이곳의 좋은 날씨와 여유로운 스케줄에 마냥 유학의 생활은 별게 아니구나 하는 잘못된 판단 속에서 생활했지요. 하지만 막상 학기가 시작되자 쏴

아지는 숙제와 시험들... 유학생활의 쓴 맛을 톡톡히 보아야 했습니다. 돌이켜 보면 그때가 제가 겪어왔던 삶 중에 가장 힘든 날들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어떤 때는 심한 감기가 들어 3일 동안 아무 것도 못 먹고 누어있다가 친절하신 어느 선배가 끓여온 죽을 먹고 겨우 일어난 적도 있고 4시간 이하의 수면과 부족한 시간 때문에 라면으로 몇 일을 보낸 후 너무 힘이 없어 “이러다 하나님 곁에 생각보다 일찍 갈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한 적도 있구요. 저의 동료들 상당수가 하루하루 피를 말리는 경쟁 속에 포기하기도 하고 한 사람씩 병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제게 가장 큰 시련은 박사 시험에 낙방하였을 때였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눈물로 준비한 시험이기에 저의 충격과 낙심은 컸습니다. 아마도 발표날의 그 상황은 영원히 제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을 것 같았고 한동안 악몽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로만 저의 생활을 판단하신다면 저는 세상에서 불행한 사람 중의 한 명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저에게는 든든한 후원자가 계셨습니다. 가끔은 원망도 많이 하고 따지듯이 과연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묻기도 했지만 주님은 저의 울며 괴로워하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계셨지요. 제가 소리치며 억울함을 토로하

고 원망해도 저의 후원자는 저의 옆에서 가만히 아주 가만히 타이르시더군요. “너는 나의 아들이다. 두려워 말라.” 물론 그것을 제가 깨닫고 믿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저의 후원자는 제가 필요로 했던 모든 것 이상으로 채워 주셨으며 상처받은 마음도 다 치유해 주셨습니다. 작년 초 다시 도전한 박사 시험에 넉넉히 합격하는 영광도 포함해서 말입니다.

지금도 저의 고달픈 생활은 예전의 그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웃으며 유학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데에는 후원자이신 주님이 언제나 제 곁에 계신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새해에도 이런 성도님들께서 후원자이신 하나님과 늘 동행하셔서 평안한 삶을 영위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중등부를 떠나며

새로운 만남이 시작되리라

교사 신동기집사

초록물이 배어 짜고 또 짜도
생명이 묻어 번져만 가는
모세같은 너 형찬아!

겨울 바위틈 얼음을 이고도
하얀 이슬같은 봄을 꿈꾸는
어여쁜 너 슬미야!

멋쟁이 성신이 흥안에
여기저기 심술궂게 웃트는
반짝이는 보석들은
하늘이 주신 젊음의 포상인가?

눈물로 가슴을 데우며
화산같은 순수의 날개를 펴고
겁없이 나는 피리의 소년
다윗 같은 너 성우야!

아침부터 해질 때까지
성전에서 길들여진 기도의 아들 사무엘처럼
든든한 너 영광아!

우리 모두 두손들어 하늘의 노래를 부르자
그리하면 우리 모두
헤어지는 슬픔이 하늘로 이어져
새로운 만남이 시작되리라
그리하면 우리 모두
새로운 영혼의 찬란한 꽃을 피우리라

사람을 나누며

예수님을 의지하며 꿈을 키우길

허숙 (집사, 유치부 교사)

민호야,

용서와 사랑과 나눔의 성탄절기에 너를 알게 돼서 우리들은 참으로 기쁘다.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사진으로 본 너의 모습은 정말 밝고 씩씩하구나.

먼저 우리 교회의 유치부에서 꼬마 친구들이 사랑의 밥그릇에 열심히 모았던 정성을 주님의 사랑과 함께 너에게 전한다. 많지는 않지만 그것은 우리 모두가 모은 정성과 사랑이면서 또 주님의 사랑이란다.

이제 14살인 네가 부모님도 안계신데 연로하신 할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얼마나 외로울 때가 많았겠니? 그러나 예수님께서 항상 민호와 함께 하시면서 너의 외로움을 위로해 주셨을 줄로 믿는다.

마음 같아서는 너를 꼭 만나서 우리들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유치부 친구들이 아직 어리고 네가 멀리 부여에 살기 때문에 가지 못

했단다.

너의 장래 희망이 목사님이 되는 거라고 들었어. 목사님이 되려면 믿음도 좋아야 하겠지만 그에 못지 않게 아름다운 마음과 훌륭한 인격도 겸비해야 할거야.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너의 꿈을 키워가기 바란다. 그래서 너처럼 힘들게 사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목사님이 되었으면 좋겠어. 우리 유치부에서도 너를 위해 항상 기도할게.

그리고 민호는 할머니를 항상 기쁘게 해드리는 착한 손자가 되어야 하겠지. 또 공부도 게을리 하지 말고 모든 일에 솔선수범하여 친구들과 사이에서 주님의 빛과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기를 바란다.

(민호는 할머니를 모시고 사는 소년 가장으로 우리 교회 유치부 친구들이 사랑의 밥그릇에 211,420원을 모아 민호에게 전달했습니다.)



서울교회 새예배당
위치: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 새 예배당 건축을 위한 7대 기도제목

1. 성군 다윗에게도 허락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집 건축을 우리에게 명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 이 일에 동참한 모든 이들에게 감사와 기쁨과 보람을 갖게 하소서.
3. 오늘도 건축 현장에서 사고 없게 하시고 원치 않는 사건 생기지 않게 하소서.
4. 이 현장을 지나거나 바라보는 이들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과 은혜를 힘입혀 주소서.
5. 먼 훗날 우리의 후손들이 조국이 경제난을 당해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었을 때 우리의 조상(선배)들은 이 교회당을 짓기 위해 눈물의 기도와 희생의 헌물을 바치었노라 할 수 있는 기념비적 예배당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6.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벽돌이 아닌 기도로 세우게 하시고,
기술이 아닌 비전으로 짓게 하옵시며,
물질이 아닌 믿음으로 이루게 하소서.
7. 설계를 맡은 정립건축, 시공을 하는 상상종합건설, 감리를 책임진 서린, 대영, 유원 종합건축회사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계속 임하게 하시고 서울교회 성도들에게 이 예배당 지을 수 있도록 그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하옵소서.

※ 새 예배당 사진은 송구영신예배 후 성도들에게 배포되었습니다. 항상 휴대하시면서 건축을 위해 기도하시고 전도용으로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받지 못하셨거나 더 필요하신 분은 안내위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1세기 민족복음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예배당을 지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 우리 서울교회 가족들은 교회 설립과 동시에 건축을 위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이남호 장로 가정에서 분당에 있는 땅을 바치던 날 우리는 그 위치나 조건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환호성을 외쳤습니다. 정동호 집사, 이복규 집사, 이수자 권사, 윤봉준 장로, 이상윤 집사 가정에서 바친 땅은 물론 서울의 강남 지역과 강북, 경기도 일원까지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땅이 있다는 곳은 그 가능성 여부를 떠나 다 찾아가 보았습니다. 당회장 목사님은 땅 이야기만 나오면 시간을 가리지 않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계약금을 들고 갔다가 사기꾼인 것을 알고 돌아온 적도 있었고 이런 저런 에피소드는 책으로 엮어도 충분할 만큼 다양한 사건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꿈같이 강남 지역 한복판 대치역 부근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기서부터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미 있던 교회를 옮기시고 그 귀한 터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 눈물 없이 말을 이을 수가 없습니다.

건축이 과정에서 전에 있던 교회가 못한 것을 우리인들 무슨 재주로 하겠느냐고 비웃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한치의 의심도 없이 믿고 추진하던 중 어느 날 갑자기 주민들의 동의를 얻게 되고 오히려 서울교회를 짓고 싶은 대로 잘 지으라는 권면까지 얻어냈으니 이 또한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염려스러웠던 것은 엄청난 토지 대금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현대 이상한 것은 아무도 걱정하는 이가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두들 입은 다물고 오직 기도와 자기 분량껏 최선의 헌신을

"새로 짓고 있는 우리"

내년부터 매주 월요일이면 현재 건축중인 새 예배당을 방문하는 현장방문이 실시된다.

교회는 전 성도들이 현재 짓고 있는 새 예배당을 한바퀴 방문할 수 있도록 새예배당 건축을 위한 기도회 및 현장 방문계획을 세웠다.

방문 일정은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실시

● 새 예배당 건축을 위한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1주	당회	스테반회	루디아1	베드로1	중등부	고등부
2주	제1권사	제2권사	루디아2	베드로2	에스더1	에스더2
3주	마리아	요한	루디아3·4	베드로3·4	에스더2	바울
4주	유아부	유치부	루디아5·6	베드로5·6	에스더3·4	바울
5주			유년부			초등부

하나님의
세워지

오정수(장)

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전 건축의 길에서

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교회는 현금 재축을 하지도 않았고 재정을 맡은 저로서도 하나님의 섭리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토지 대금은 약속한 날에 정확히 전액을 지불할 수 있었습니다. 남몰래 하나님 앞에서 희생한 이들이 있었던 것도 우리 교회만 가진 비밀스런 사랑이라 할 것입니다.

기적으로 는 교회

건축위원장)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우리는 두려움 없이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바자를 통해 건축기금을 단번에 8억원을 만든 것도 기적이었고 김치 신학세미나, 목회자신학세미나, 농어촌100교회운동 등 국내외의 행사들을 계속하면서 예배당 짓는 일을 병행한다는 것은 이 어려운 경제 난국에 누구도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 외에 다른 것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설계회사나 건축회사 그리고 감리회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지혜를 훨씬 뛰어 넘어 당신의 방법을 보여주셨습니다. 큰 무리가 없이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건축할 수 있게 하신 것이나 인근 주민과의 대화가 은혜롭게 풀려나가는 것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특은으로 밖에는 달리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홍정호 장로가 건축위원장일 시절 교회는 대지를 구입했고 임광식 장로, 박철훈 장로가 건축위원장일 때 건축허가를 받았으니 이제 부족한 게 건축 책임을 맡게 된 동안 새 예배당을 완공할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의 기도와 헌신을 부탁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영광스런 새 예배당을 이미 받은 줄 믿고 바라보면서 기적을 일으키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돌리면서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신 말씀대로 믿고 헌신하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배당을 찾아가 봅시다."

1월 오전 10시 30분부터 오간 교회당에서 새예배당 기도제목을 중심으로 기도축현장으로 이동하여 오후까지 현장을 방문하여 건축된다. 특히 현장 방문 시간

중에는 차와 김밥 등 간식류와 돛자리를 준비하여 함께 음식을 나누는 간식 시간도 마련된다. 방문 일정은 가급적 지킬 것이 요망되나 사정에 따라 변경도 가능하다.

모든 성도들의 정성이 담아 하나님께 봉헌하는 이 역사에 아낌없는 참여가 요청된다.

기도회 및 현장 방문 계획

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부	바울3·4	모세	대학부	청년부	스데반회	신임권사
5·6	바울5·6	가브리엘	호산나	장년부	당회	신임안수집사
1	한나1	할렐루야	시온	소망부	제1권사	건축위원회
2	한나2	임마누엘	사랑부	새가족부	제2권사	교역자, 직원
부		베들레헴			신임장로	

서울교회당-도시교회의 새로운 전형

정립건축 설계본부

"교회는 자연의 요소가 풍부한 농촌에도 큰 건물이 뻗어 들어 찬 도시에서도 주택가와 빈민가 등 어떠한 환경에서나 잘 친화되어 그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복음과 교회의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교회는 사람들로 부터 경멸이나 혐오되는 건축물이 아니라 구원의 사랑으로 탐모 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발길을 끄는 건축물이 되어야 한다."

1. 도시 안의 교회

서울교회는 서울에 있습니다. 서울교회는 이제 서울이라는 메트로폴리탄에 우뚝 서게 됩니다. 서울교회는 도시화된 환경에 적합한 교회상에 대한 신앙적인 요구에 대한 건축적 고뇌의 산물이며, 이 시대의 신앙적 고백의 상징입니다. 앞에서 인용되었듯이 교회는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면 어디에도 교회는 있지만, 서울교회는 서울이라는 도시를 목회의 터전으로 설정한 이종윤 목사님의 목회철학에 부응하는 성전을 세우기 위한 기도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정립건축의 교회 건축에 대한 소명의식과 성숙된 경험으로 이제 도시 교회의 새로운 전형으로 자리매김될 성전 건축이 우리의 눈앞에 그 모습을 드러낼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2. 밝은 교회

빛은 영광과 은혜의 상징입니다. 한때는 어둡고 엄숙한 분위기를 중시하던 시대도 있기도 했지만, 빛에 대한 열망은 중세 교회부터 오늘날의 성전 건축에서 일관되게 추구되어온 가치입니다. 서울교회에서도 영광과 은혜로운 예배당 분위기를 창출하기 위하여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자연광을 최대한 받아들이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제

서울교회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 목사님과 성도들이 만나는 기쁨, 성도와 성도가 만나는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3. 일곱 촛대의 교회

서울교회는 하나의 교회이면서 동시에 여러 교회의 교회입니다. 서울교회는 반석 위에 지어진 건실한 하나의 교회이면서 더 나아가 세계 선교의 중심이 되는 일곱 촛대의 교회입니다. 이러한 역할과 위상은 일곱 개의 촛대로 상징됩니다. 촛대는 캄캄한 어둠속에서도 우리의 갈 길을 밝혀줍니다. 따라서 촛대는 곧 교회입니다. 서울교회의 일곱 촛대는 그 하나가 곧 교회입니다. 서울교회라는 하나의 큰 울타리 속에 여러 교회가 있습니다. 이제 서울교회는 하나의 교회로서, 서울이라는 도시를 대표하는 교회로서 더 나아가 21세기 세계 복음화의 중심에 우뚝 서는 교회의 성전을 세우기 위한 망치 소리와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4. 지역과 조화를 이루는 교회

서울교회는 여기까지 오기까지 수많은 시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 시련마다 교회는 교회의 방식으로 그 시련을 극복하여 왔습니다. 그 시련 중에 으뜸은 주변 지역주민과의 관계였습니다. 주변으로부터 경멸이나 혐오가 아닌 구원과 사랑의 상징으로 사랑 받는 교회가 되어야 했기에 시련을 극복함에 있어서도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방식이 아니라, 오직 기도와 헌신으로 일관하여 왔습니다.

이제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건축될 성전은 지역과 하나 되고 지역주민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더 나아가 지역을 복음화하는 성전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99년 첫 문을 열며

어둠을 밝힐 준비를

김한성(대학부)

부족한 저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언제나 격려와 기도를 해주신 박귀환 목사님, 그리고 구역 식구들과 대학부 선생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1998년이 어느덧 지나가고 1999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개인적으로도 1998년은 여러 가지로 의미 있는 한 해였습니다. 4년 가까이 지속된 고시 준비기간을 마치고 지난 6월에는 사법시험을 치렀습니다. 시험을 잘 보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으나 이름이 합격자 명단에 들어있는 것을 보는 기쁨도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막상 시험에 합격하고 나니 기쁜 마음에 더해 내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걱정과 불안한 마음도 한편으로 생겼습니다. 법조인이란 사회의 어두운 곳에서 등불을 밝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크리스찬 법조인은 이러한 일에 더욱 앞장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제 믿음은 세상 권세를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에는 너무나도 미약하기만 합니다. 새해에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그리스도를 좇아가는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곧 들어갈 사법연수원에서 부족한 실력을 더 갈고 닦아, 말은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희망의 주님을 붙잡고

강석우(집사, 4교구)

주일마다 교회에서 만나는 분들의 표정은 늘 밝습니다.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서, 혹은 세상 걱정에서 하루라도 벗어난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IMF 상황에서 벌어지는 주변 모습은 생각보다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가장이 실직한 가정도 알게 모르게 많고, 그나마 직장에 아직 '붙어 있는' 분들도 살얼음판을 걷는 느낌일 것입니다. 더욱이 사업을 하는 분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괴롭고 처참한 기분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심하게는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들립니다. 생명을 내던질 만큼 힘겨운 상황이 여가져기서 아직도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 이 땅에 사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너무 힘에 겨워 괴로워합니다. 더더구나 의지할 데조차 없는 사람들의 절망은 더 크고 괴로움도 더 깊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 희망은 그림자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확실히 믿을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의지하고 매달릴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건 얼마나 큰 행운이며 감사할 일입니까.

이제 1999년입니다. 그분께 더 매달리고 더 더욱 의지하려고 합니다.

아뢰고 결과 기다려

이운진(집사, 4교구)

새해 소망을 조목조목 적어 내려갔다.

'약국을 이전하는 일' '입시를 치른 딸의 진로' '집을 떠나 공부하고 있는 아들의 믿음생활' '남편에 대한 바램' '부모님과 가까운 친척들의 구원' '새성전의 건축' '소속다락방의 배가' 등등. 남편이 슬쩍 훑쳐 보더니 "소망이란 어차피 내가 이룰 수 없는 것인데 예수님께 좀 큰 걸 맡겨야지" 라며 훈수를 둔다. 문득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성령의 열매들이 생각났다. 나의 성령 나무에는 아홉 가지 열매들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풍성함의 빈곤을 느끼곤 했다. 그래, 내 소망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지. 오직 예수님께 아뢰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소망의 진수가 아닐까?

예수님, 저의 새해 소망은 균형잡힌 성령의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저의 모난 곳이 다듬어지고 모자라는 성품이 잘 채워져서 예수님을 한결음씩 가까이 닮아가고 싶습니다. 48년간 굳어진 제 성품을 제

가 고친다는 건 불가능한 것 아니죠? 주님께 서 팔을 걷어붙이시고 해결해 주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도가니를 만들어서

이완형(집사, 스테반회)

허물 많고 어리석은 사람이 스테반회의 중책을 맡게 되니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앞섭니다. 항상 기둥 밑에 숨겨진 돌처럼 겉으로는 나타나지 않으나 남을 아끼주고 존경하면서 겸손하게 (겸손은 우리 의무지만 한편으로 참으로 붙잡기 어려운 것임을 깨달아 압니다) "무슨 일이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좇아 일하는 충성스런 일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흐르는 개울 속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물 속에 물이 흐르고 있음을 알 수 있듯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마음을 중용케 하여 기다리는 중에 주님의 미세한 음성을 듣고 소금의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여, 당신이 나를 사랑하심같이 나도 형제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작은 일 하나 하나도 감당할 수 있도록 거역할 수 없는 열심을 주옵소서" 라고 항상 주님께 간구하겠습니다. 쓸쓸한 들녘에 눈에 띄지도 않는 많은 꽃을 피우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스테반회 회원들에게는 분담된 역할을 다하되 하나가 되어 교회를 든든히 세워 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부탁드립니다. 겉으로 보기에 좋은 것 같으나 살펴보면 자기 겉모습만을 나타내고 있는 샐러드(green salad)가 되기보다는 자기를 불사르고 희생하며 변혁되는 도가니(melting pot)가 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스테반회 회원들이 이 일을 성실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도들의 기도를 삼가 부탁드립니다.

청년의 가슴에 교회의 미래를...

김민철(청년부 회장)

주님! 20세기의 마지막 1년이 시작되었습니다.

뒤돌아보면 지난 해는 슬픈 해였습니다. 평생을 바친 일터를 하루 아침에 잃은 분이 있는가 하면 물가는 치솟고 실업자는 200만 명을 넘으려 하고 그럼에도 여전히 민족적인 회개와 반성은 일부 사람들의 전유물일 뿐이었습니다. 분쟁을 일삼는 자는 여전히 분쟁을 일삼았고, 교만하고 자고한 자는 여전히 겸손을 몰랐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들을 따뜻하게 보살피 주고 주님의 사랑으로 선대하지 못하고 인색함과 이기적인 마음으로 외면했던 행동을 용서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분쟁을 그치고 겸손히 주께 엎드리지 못하고 자신의 아집과 편견으로 스스로 눈을 가리고 살았으니 저희들의 부족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성품을 배우는 지혜와 영적인 안목,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 저희 청년들은 아직도 주님의 말씀 중 가슴깊이 깨닫지 못한 부분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늘 말씀이 소중하고, 기도가 긴요한 일인줄 알고 있지만, 그것이 지식과 논리에 그칠 뿐 삶이 되지 못하였고, 예배당에서만 주님을 인정할 뿐 우리가 몸담고 있는 직장이나 일터에서 주님의 성품대로 살지 못했고, 성경의 원리로 일을 하지 못했으며,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담대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새해에는 더욱 주님과과의 교제가 깊어지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원리로 세상을 변화시키며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저희에게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특별히 청년의 때에 무의식적으로 반 아이들은 반기독교적인 대중문화, 물질주의, 향락, 사치등으로 황폐해져 가는 이 세상을 바로보는 믿음의 눈과 은밀히 하나님을 부인하는 모든 이론들을 결연히 파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오직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

도께 복종하여 종말의 때에 주님 앞에서 진실로 깨어지고, 훈련받고, 순종을 배우고, 비전을 품게 하셔서 교회의 미래를 짊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해 주십시오. 21세기를 책임질 우리 청년들의 가슴에 힘없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는 권사회 주심을 감사하면서

김은애(권사, 제1권사회 부회장)

제 죽은 영혼을 구원키 위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장로님이셨던 아버지 밑에서 그분의 신앙을 본받으며 자라났습니다. 지금도 컸가에 생생히 맴도는 할머니와 아버지의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어찌보면 답답한 구식 같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조용히 많은 기도를 올리고 밖에 나가서는 묵묵히 맡은 자리에서 충성하라는 깊은 뜻이 있음을 알고부터는 그 말씀이 이날까지 제 생활의 신조가 되었습니다.

크고 작은 교회들을 거치면서 서울교회에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달고 오묘한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기도는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과 뜻과 경성을 다해야 하는 것이기에 항상 조심스럽습니다. 중보기도를 부탁하기도 하고 부탁도 받지만 기도하는 자의 마음이 일치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서울교회는 많은 일을 하는 만큼 정말 많은 기도가 있어야 될 줄 압니다. 7년 동안 내려 주신 복과 은혜를 어찌 다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 서울교회 성도들은 이제 새 예배당 건축을 위해 더 많은 기도를 합시다. 주님께서 귀한 종을 앞세우시고 하시고자 하는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이 민족이 심각한 경제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악한 것이 손 못대게 하시며 끝까지 하나님의 보호 받는 민족이 되기를 쉬임없이 간구합니다.

기도의 어머니로 본을 보여야 할 우리 권사들은 주의 사랑 안에 뽕뽕 뭉쳐 날마다 기도로 호흡하며 우리 숨이 멈추는 그날까지 서로 어깨를 부축이며 함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고백만으로는 100점이 못된다"

동방의 의인 자격 만큼이나 최고치의 삶을 누리고 살았던 욥이었다. 밀바닥에 깔려 있는 모든 것의 기초는 믿음이었고 그것을 생명 이상으로 지키며 살아왔다. 부귀라든가 영화와 같은 것은 덧붙이기였음을 자신했고 그것 때문에 한 번도 흔들리는 경우가 없었다. 그래서인지 하루 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는데도 그의 첫 고백은 의외로 신선한 충격을 줄 만한 발언이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이 정도의 신앙고백이라면 하나님은 욥에게 더 이상의 고난은 중지시켜야 했다.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지 못했다고 할 만큼 최상의 고백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욥은 그 고백 후에 소생하는 과정을 겪을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긴 고난의 용광로 안으로 깊숙이 들어갔다. 그가 겪은 고난의 마디마디에는 인간 한계를 벗어난 고난도 경험들이었다.

하기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이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후에도 사탄아 물러가라 야단 맞은 것을 생각하면 또다른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었다. 하나님은 우리의 깨끗한 고백을 기뻐하시면서도 그 고백 플러스 하나를 강력히 요구하심을 욥은 모르고 있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의 하나님의 훈련원칙 말이다.

나는 날마다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한발짝도 앞으로 가거나 믿음을 증거로 보이는 일에는 타인이다. 이것이 오늘 나의 질병이고 하나님의 고민이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나에게 다시 말씀하고 계신다.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김광신(장로, 11교구)

욥기

1장 21절

신년예배와 성찬식

1999년도 첫 주일인 오늘 I·II·III부 예배는 신년감사예배로 드린다. 신년예배 시에는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성찬식을 거행한다.

헌금시간에는 신년감사헌금을 드린다.

공동의회

오늘 III부 예배 후 공동의회가 소집된다. 오늘의 의제는 1998년도 결산승인의 건과 1999년도 예산 승인의 건으로 우리 교회에 등록된 세례교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순결서약식

오늘 찬양예배 시 1999년도 순결서약식을 갖는다.

오늘 순결서약식에는 13세 이상의 미혼자로 앞으로 결혼 전 순결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결심을 하고 지난 31일 순결 교육을 받은 성도들이 참가하게 된다.

순결서약식에서는 참가자들이 주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으로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겠다는 서약을 하게 되며 서약을 항상 상기할 수 있도록 교회와 부모 그리고 주변의 어른들이 마련한 '순결반지'가 주어진다.

순결서약식은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펼치고 있는 '정직·절제·사랑 실천운동'의 일환으로 시작되어 우리 교회가 교회 차원에서 가장 먼저 1995년 첫 주에 서약식을 개최하여 모델을 제시한 바 있다. 현재 이 운동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실시되고 있다.

- * 이종운 목사는 4일(월) 정립건축 사무예배에서 설교한다.
- * 당회원과 무지개회원은 4일(월) 새 예배당 건축을 위한 기도회와 현장 방문을 한다.
- * 이번주 점심식사는 이종운 목사·홍순복 사모 가정에서 제공했다.

새해부터 모든 공예배 개역개정판 성경 사용

우리 교회는 1999년 1월 첫 주부터 모든 공예배에서는 개역개정판 성경을 사용키로 했다.

지난 해 8월에 출간된 개역개정판은 1961년판 개역성경이 사용한 원본을 중시하면서 동시에 현대 국어 문법에 맞지 않는 부분과 옛날식 표기를 바로 잡아 기존 성경의 언어와 표현 중 현대인에게 오해될 수 있는 내용을 수정한 것이다.

한편 교회에서는 기존의 개역 한글성경도 사용할 수 있으나 가능하면 공예배시에 개역개정판 성경을 이용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100교회 운동

농어촌 100교회 운동이 새해에도 계속된다.

100교회 운동본부에서는 100교회 운동에 참여한 모든 후원자들이 작년에 결연한 교회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새롭게 이 일에 참여할 성도들을 위해 계속하여 신청을 받고 있다.

100교회 운동은 농어촌 미자립교회와 결연하여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는 것으로 한 가정이나 개인별 혹은 전도회, 다락방, 교회학교,

찬양대 등이 협력하여 참여할 수도 있다. 신청 및 문의는 사무국으로 하면 된다.

목회자 신학심포지엄

제 3회 '교회갱신과 성장을 위한 목회자 신학심포지엄'이 1월 11일부터 12일까지 1박2일 간 광림수도원에서 열린다.

이번 심포지엄은 한국교회갱신연구원(KIMCHI) 동문회(회장 차정운목사)가 주최하고 서울교회 한국교회갱신연구원(원장 이종운목사)이 후원한다.

이번 심포지엄의 참가 대상은 목사와 전도사 등 전국의 목회자이며, 신청은 한국교회갱신연구원 동문회(02-3426-4236) 또는 한국교회갱신연구원(02-517-7651/5)으로 하면 된다. 등록비는 3만원이다.

1999년 청지기 수련회

1999년도 청지기수련회가 올해 4일(월)부터 9일(토)까지 특별새벽기도회가 끝난 새벽 5시 35분부터 6시 15분까지 2층 예배실에서 실시된다. 수련회 기간 중 요일별로 위원회별·직분자별 특강이 진행된다. 강사는 위임목사와 각 위원회 지도목사가 맡았다.

1999년도 청지기수련회 일정

구분	교회학교교사	찬양대원	전도회임원	교구일꾼	권사·집사	목사·장로
일자	4일(월)	5일(화)	6일(수)	7일(목)	8일(금)	9일(토)
5:00	신년특별 새벽기도회(강사: 이종운 목사)					
5:30	장소이동					
5:35	헌신된 교사와 신앙교육	찬양대원의 자세	전도회 부흥과 실제	교구일꾼의 사명	바람직한 제직	복음의 제사장
6:15	이성득 목사	박귀환 목사	김정현 목사	박귀환 목사	이종운 목사	이종운 목사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기독교방송(HLKY 837K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국동방송(HLK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아세아방송(HLAZ 1566KHz)	라디오 강단	주일 오전 8시 30분 ~ 9시
	새벽의 강단	금요일 오전 4시 20분 ~ 4시 50분

*찬양의 시간이 매주일 오후 4시부터 50분간 1층 예배실에서 열립니다.

서울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고침을 받고 고쳐 주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2. 1999년도 교회의 행사를 위해
3. 순결서약식과 청지기 수련회를 위해
4.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예배당 건축을 위해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서울교회위치

